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30일(일) 총 4매		
담당 부서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담 당 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박서현 ☎440-3241 • 담당자 전한솔 ☎440-323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유럽 도시들 맞아 더욱 두터운 도시외교 펼쳐

- 독일 베를린시, 스페인 알메리아시 각각 인천시 방문 -
- 베를린시와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 알메리아시와 신재생에너지 현장 방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독일 베를린시와 스페인 알메리아시 관계자들이 각각 10월 17일~10월 20일, 10월 25일~10월 28일까지 인천시를 방문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도시인 두 도시는 ICP-AGIR\*(국제도시파트너십-그린/포용적 회복을 위한 행동) 프로젝트 참여의 일환으로 인천시를 방문했다.

\* ICP-AGIR : International City Partnerships-Acting for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인천시가 올해 초부터 참여하고 있는 ICP-AGIR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시티넷(CityNet)과 유럽연합(EU)에서 ‘순환경제, 에너지 전환, 대기질’ 등을 주제로 유럽연합(EU)도시와 비유럽연합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베를린시와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분야에서, 알메리아시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베를린시는 관계 공무원 6명이, 알메리아시에서는 기업관계자, 교수, 공무원 등 4명이 인천을 찾았다.

이번 방문에 앞서 양 도시와 인천시는 상호 분야별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수 차례 개최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6월에는 베를린시를 방문했으며, 9월에는 알메리아시를 방문해 관심 분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베를린시는 스마트시티 분야와 관련해 인천공단소방서(디지털 화재대응 현장지휘 시스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타트업파크를 방문했으며,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항장, 제물포구락부, 개항로길, 강화도 등을 방문했다.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는 학교 주요 시설 및 스탠포드연구소, 바이오분석센터 등 연구소들을 둘러보고 상호 도시 대학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알메리아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SK석유화학, 인천연료전지, JH에너지, 인천그린에너지 등을 기업들을 방문했으며, 인하대학교 키우리연구단을 방문해 대학 간, 연구소 간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스타트업 파크와 인천상공회의소 방문에서는 인천시 기업과 스페인 알메리아 기업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양 도시의 인천 방문 이후에도 인천시는 ICP-AGIR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상호 도시 간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

이다.

나기운 시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은 “인천시가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유럽연합(EU)도시의 인천 방문은 향후 인천시의 유럽 도시외교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참고

관련 사진

☐ 독일 베를린시 방문단(도시재생 현장 '개항살롱')



□ 스페인 알메리아시 방문단 (인천시청)

